

IFLA TREND REPORT 2016 UPDATE

“앞을 전혀 내다보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내다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 질 앙리 푸앵카레, 과학재단(The Foundations of Science), 1913년

INSIGHTS FROM THE



TREND
REPORT

IFLA는 도서관과 정보 공동체의 국제적인 대변자입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문헌정보 서비스와 그 이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140여 개국, 1,300여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비정부 비영리 기관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급변하는 디지털 및 인쇄 환경에서 전 세계 공동체에 대한 정보와 문화유산 자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우리의 핵심 의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국제적 리더십, 홍보 및 지지활동, 다언어주의 등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는 회원기관들의 역량을 구축하고, 지침 및 기준의 개발, 출판, 전 세계적인 행사들을 통해 전문적인 의제를 설정한다.

문헌정보 서비스를 위한 국제조직으로서 IFLA의 위상은 UN 및 기타 기관들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대변되도록 한다.

IFLA 동향보고서 원본의 작성자:

올리비에 크레팽-르블롱(Olivier Crepin-Leblond),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자문
위원회 위원장

앙리엣 에스터휘센(Annette Esterhuysen), 진보적통신협회,
CEO(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디비나 프로-메이그(Divina Frau-Meigs), 파리 제3대학 교수

멜리사 그렉(Melissa Gregg), 인텔소셜컴퓨팅센터(Intel Center for
Social Computing) 책임연구자

존 휴튼(John Houghton), 빅토리아대학교(Victoria
University) 전략적 경제학 센터 펠로우 교수

데보라 제이콥스(Deborah Jacobs), 빌&멜린다 게이트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글로벌 라이브러리소 소장

마리엠 잼프(Marième Jamme), 스팟원 글로벌 솔루션스(Spot One
Global Solutions) CEO

재니스 카클린스(Janis Karklins), 유네스코(UNESCO) 통신 및 정보
부국장

알레한드로 피산티(Alejandro Pisanty), 멕시코자율대학교(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교수

리 레이니(Lee Rainie),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 인터넷과
미국인의 삶 프로젝트 소장*

케이트 러셀(Kate Russell), 프리젠테이션, BBC 클릭 온라인

안드레아스 쉴레이셔(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국 부국장

수니트 싱 툴리(Suneet Singh Tuli), 데이터윈드(DataWind Ltd) 창립자
및 CEO

프레드 스티로우(Fred Stielow), 미국공립도서관시스템 도서관 VP/소장

프레드 본 로만(Fred von Lohmann), 저작권 법률 담당관*

루이스 자카릴라(Louis Zacharilla), ICF(Intelligent Community Forum)
공동창립자

IFLA 동향보고서 2016년도 업데이트는 제럴드 레이트너(Gerald
Leitner), 로하 마노(Rauha Maamo), 크리스틴 맥켄지(Christine
Mackenzie), 헬렌 니가드(Hellen Niegaard), 베로니카 로드셉 리누푸
(Veronika Raudsepp Linnupuu), 도나 쉬더(Donna Scheeder)의 도움
으로 댄 마운트(Dan Mount)가 작성하였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함.



저작자 표시 - 비영리용 4.0 국제 라이선스

언론 문의 및 추가 정보 연락처 :

tuart.hamilton@ifla.org

1 요약

2016년도 업데이트 보고서는 IFLA의 요청으로 지난 3년 간 전 세계 도서관 공동체에서 진행된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의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포괄적인 논의들은 2013년 8월 싱가포르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 Information Congress)에서 발표된 IFLA 동향 보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 2013년에 발표된 IFLA 동향 보고서는 전 세계의 정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동향을 적시하였다. 지속해서 변화하는 이러한 동향은 정보 접근성, 교육, 개인정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참여, 기술적 변화에 걸쳐 있었다. 적시된 동향들에 대한 정적인 그림 이상의 것을 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IFLA 동향보고서는 전 세계 도서관 공동체에서 더욱 포괄적인 논의와 분석, 행동을 증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2013년 8월 이후 IFLA 동향보고서는 14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남미/카리브해 연안, 북아메리카의 30여 개국에서 60여 개에 달하는 토론회를 촉발했다. 본 보고서의 섹션 3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별 주제와 질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아프리카

핵심 주제 및 질문

-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은 자신의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박탈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 인프라, 연결성,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문제들
- '개방형 온라인 강좌(Massive Open Online, MOOC)'와 '교육 자원 공개(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는 거대한 학습 기회이다.
-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국가적 데이터 정책의 가치
- 3D 프린팅은 위협인가 또는 기회인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핵심 주제 및 질문

- 도서관이 왜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인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 모바일 기술이 지역사회를 재규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를 변화시키기
- 빅데이터, 지역사회 출판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문헌정보학 기술의 증진

- 온라인 교육 제공자 및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이 부상할 가능성

유럽

핵심 주제 및 질문

- 저작권,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전자대출(e-lending)을 둘러싼 새로운 도전과제들
- 프라이버시의 쇠퇴는 통제의 수단인가 아니면 역량 강화의 기회인가?
- 사서들 간의 기술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 도서관 간 전략적 협력의 강화
- 도서관 원칙, 디지털 기회 그리고 이용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

핵심 주제 및 질문

- 사회적 배제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결성 문제의 극복
- MOOC은 물리적 도서관을 다시 활성화할 것인가?
- 신기술은 지역사회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저해할 것인가?
- 사서들은 어떻게 디지털 및 문화적 변화를 소화하고 포용할 수 있는가?
-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한 잘 조율되고 협력적인 접근법의 개발

북아메리카

핵심 주제 및 질문

- 도서관 서비스와 도서관의 미래 역할을 재구상하기
- 디지털에 의한 교육시장의 교란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가?
-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물리적 및 디지털적 역할을 해야 한다.
- 도서관은 어떻게 도서관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 학습자들은 여전히 디지털 환경과 대면(face-to-face) 환경을 모두 필요로 한다.
- 도서관은 어떻게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혁신을 포용할 수 있는가?

본 보고서의 **섹션 4**에서는 2013년 8월 이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주요 행사 및 활동과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에서의 사례연구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섹션 5는 2013년 이후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함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IFLA의 다섯 가지 동향을 간략히 검토한다. 이 리뷰의 결론은, 지난 3년간 비록 이러한 동향들의 구체적인 조성과 강조점이 변하기는 했지만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서 여전히 그러한 동향들이 정확하며 중요한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섹션 6은 동향보고서에 대한 논의들에서 드러난, 도서관의 미래에 관한 주요 메시지들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이자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사서들이 평생학습을 포용하는 일의 중요성, 사서들이 미래 정보환경의 협력적인 설계자가 되기 위해 IFLA 변화 의제([Change Agenda](#))를 지원하도록 모든 단위에서 협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것이다.

2 들어가는 말

2016년도 업데이트 보고서는, IFLA의 요청에 따라, 동향보고서 원본에 촉발된 국가적, 지역적 논의들에서 부상한 핵심 주제들을 규명하여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논의들을 요약하며, 동향보고서와 관련하여 도서관들의 행동 사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들을 제시한다. 또 2013년 이후 우리 정보환경에서 진행된 변화들과 함께,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동향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도서관의 미래에 관한 주요 메시지들과 그러한 메시지들이 전 세계 도서관 생태계에서 전략적 협력과 참여, 지원활동에 주는 함의를 탐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013년 8월에 발표된 IFLA 동향보고서는 전 세계의 정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동향들을 적시하였다. IFLA 동향보고서는 정적인 출판물을 훨씬 뛰어넘도록 의도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 동향보고서는 전 세계 도서관 공동체에서 폭넓은 논의와 분석,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기획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2012년 출범 당시, 동향보고서의 기획을 맡은 실무단은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었다. 첫째, 이 동향보고서 프로세스는 전 세계 정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들을 규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서관 분야의 전통적인 비전 영역을 넘어설 것이다. 둘째, 동향보고서는 규명된 동향들을 단순히 정적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전 세계 도서관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을 촉진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해서 발전하는 일단의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야심 찬 목표들을 지원하기 위해 IFLA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차례대로 신중하게 착수하였다.

- 2012년 11월, IFLA는 새로운 동향들에 관한 당대의 연구와 보고서들을 조사하는 포괄적인 문헌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문헌조사는 170여 편 문서에 달하는 서지목록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목록은 2013년 1월에 동향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었다.
- 2013년 2월, IFLA는 10명의 저명한 사회과학자, 경제학자, 교육 전문가, 변호사, 테크놀로지 전문가를 지명하여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했다.
- 2013년 3월, IFLA는 멕시코 시티에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이 전문가 패널이 규명된 동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했다.

- 2013년 5월, 전문가 패널은 멕시코에서 열린 동향보고서 온라인 토론 포럼을 통해 라운드테이블에서 선정된 핵심 질문과 사안들에 대해 계속해서 쌍방향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6월에는 사상가들과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더욱 폭넓게 구성한 생태계로 이 디지털 논의를 개방했다.

2013년 7월에는 이처럼 여러 갈래로 구성된 논의의 결과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동향을 제시한 '인사이트 문서(Insights Document)'를 작성했다.

1. 신기술은 정보에 접근하는 개인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할 것이다.
2. 온라인 교육은 전 세계의 학습을 민주화하는 동시에 교란시킬 것이다.
3.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의 경계가 재정의될 것이다.
4.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¹'는 새로운 목소리와 집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5. 전 세계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는 신기술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IFLA 동향보고서는 2013년 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도서관 정보에서 당시 잉그리드 페어런트(Ingrid Parent) IFLA 회장이 발표했다. 이 동향보고서는 불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세르비아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러시아어, 에스토니아어, 불가리아어, 핀란드어 등 14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인도, 말라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영국, 미국,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등 30여 개국에서 각종 행사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¹ 인터넷, 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을 연결한 사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3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요약

이 섹션은 2013년 8월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남미/카리브해 연안,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진행된 동향보고서 논의에서 부각된 핵심 주제들을 요약하고 있다.

아프리카

2014년 8월 '동부/중앙/남부 아프리카 문헌정보 협회 상임위원회(Standing Conference of Eastern, Central and Southern Afric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s, SCECSAL)'는 말라위에서 IFLA 동향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한 패널토의를 조직했다. 이 패널토의에는 케냐, 가나, 우간다, 남아프리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보츠와나와 짐바브웨로부터도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2014년도 SCECSAL 보고서에 요약되었다. 이 섹션은 그러한 논의들에서 나온 핵심 요소들을 요약한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혁신이 없이는, 도서관의 본연의 역할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

보츠와나에서는 인터넷 연결성과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도서관은 (은행 업무나 금융 서비스 등과 비교할 때) 온라인에서 교육 콘텐츠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디지털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도서관은 정보와 디지털 문해성, 지적재산, 데이터 관리를 둘러싼 주요 논쟁들에서 주도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역할을 빼앗길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도서관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성, 연결성, 그리고 학습자들, 특히 농어촌이나 빈곤지역의 학습자들이 새로운 디지털 학습 기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인프라를 둘러싼 어려움

우간다에서는 연결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

존의 광대역 인프라가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스카이프(Skype), 왓츠앱(WhatsApp), 바이버(Viber)와 같은 새로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다룰 용량이 부족한 구형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케냐에서는 또한 소셜미디어가 (예: 선거기간 동안) 정치에 참여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동아프리카에서 더욱 큰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또 다른 동력은 모바일 금융이다. 모바일 금융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SMS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했다.

디지털 기술은 여전히 서비스 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도서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단계들을 밟았다. 일부 도서관들은 온라인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으며, 도서관 웹사이트의 "사서에게 물어보세요(Ask a Librarian)" 기능을 통해 이메일 참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온라인 학습/원격학습은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를 관리하고 학생과 강사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사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용자들이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충분한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논의는 특히 디지털 콘텐츠 관리, 정보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사서들이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디지털 동향에 따라 문헌정보학 커리큘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도서관 건물을 방문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온라인 채팅 참고 서비스와 기타 원격 온라인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이 필수일 것이다.

MOOC과 OER은 거대한 학습기회이다

가나에서는 사서들이 '정보 관리 자원 키트(Information Management Resource Kit, IMARK)'를 이용해서 몇 가지 온라인

학습강좌를 개발했다. IMARK는 또한 개발을 위한 소셜미디어, 정보에 대한 전략적 접근, 디지털 도서관/리포지토리/문서 등 다양한 모듈을 무료로 제공한다. 폭넓은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에는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온라인 자원은 직원들의 디지털 기술과 지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MOOC과 OER은 아프리카인에게 거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수천 명의 학습자가 이미 이러한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지만, 도서관이 이처럼 삶을 바꾸는 교육 서비스들을 확대하는 기술과 테크놀로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정보 보안

나미비아에서는 디지털 도구,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제출한 정보, 도서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공유/처리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진행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온라인 활동이 남긴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디지털 발자국의 부작용에 대한 논쟁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데이터 수집 기능과 함께, 과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하였던 상당량의 정보가 공적 영역으로 나오는 현상에서 소셜미디어가 하는 역할에 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사서들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는 업무 관행과 효과적인 정보 보안 접근법들을 검토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정보 문해성 기술의 제공과 지속해서 변화하는 정보관리의 윤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협력적인 디지털 연구와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3D 프린팅은 위협이자 기회이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3D 프린팅의 발전은 기회이자 위협으로써 간주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3D 프린팅은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노동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른 대륙에 있는 국가들로 생산을 아웃소싱할 필요성을 줄일 잠재성이 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새로운 제조 역량의 개발을 자극하고, 아프리카 제조자들과 공급자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3D 프린팅이 보편화되면 작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생산하던 기존의 제조사들과 그 직원들, 그들이 제품을 공급하던 소매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류 3D 프린팅이 갖는 경제적 여파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가적 데이터 정책 프레임워크의 가치

짐바브웨에서는 사서들이 지역의 데이터 관리 정책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서들이 가진 정보 기준과 파일 구조, 메타데이터 체계와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을 고려할 때 이는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은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짐바브웨가 아직 국가의 정보정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서들의 전략적 우선 과제는 우수한 데이터 정책 프레임워크라는 포괄적인 가치 아래에서 정책결정자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보서비스의 전달기제로서의 모바일

짐바브웨의 사서들은 (현재 90%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연구, 경제발전, 건강, 농업과 관련한 중요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통로로 보고 있다. 일례로, 일부 도서관에서는 정보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원격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용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SMS 텍스트 기반의 참고 서비스 모델은 원거리의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와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왓츠앱과 같은 새로운 메시지처리(messaging)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실시간 지원이 제공되며, 이용자들이 물리적인 도서관 건물을 방문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짐바브웨대학교 도서관은 또 '파리레냐트와 병원(Parirenyatwa hospital)'의 의사들에게 증거 기반의 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 전자 농업 모바일 정보 서비스를 통해 짐바브웨 전역의 농민들에게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비슷한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를 통해 농민들은 투명한 실시간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캔버라(호주)와 치앙마이(태국)에서 개최된 일련의 토론회를 통해 IFLA 동향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도전과제들이 규명되었다. 이 지역의 도서관들은 그 규모와 자원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서 동향보고서가 토론의 촉매제로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도서관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동향보고서의 결론이 갖는 중요성과 상관성도 다르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또는 필요한 인프라로서 도서관을 자리매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동향보고서가 자동으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 도서관이 도서관과 도서관의 서비스가 해당 지역사회에서 왜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없다면, 시급성을 요구하는 다른 수많은 지원 영역들까지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도서관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문제로 규정될 위험이 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익숙한 시나리오를 상기시키는데,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증가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바꾸고 발전시키려면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만을 생각하는 현재 정치권의 인식은 추가 예산 지원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모바일 기술이 지역사회를 재정의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의미를 바꾸고 있다.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 가져오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 도구들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고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연결성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와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새로운 이득과 혜택은 잠재적으로 디지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정보 문해성,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높이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도서관을 변화시키기

호주에서는 3D 프린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창의적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가 개발되고, 어린이를 위한 기초 코딩 강좌가 제공되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물리적 공간의 사용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책을 보관하는 물리적 장소 대신에 장비와 모임 공간, 협력적 학습 공간이 들어서고 있다. 또 상당수의 정부 및 영리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이용자들이 여권 신청,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이용,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도서관에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들에게 취약집단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위험 또한 증가시킨다.

신기술의 활용과 새로운 파트너십의 발견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의 도서관들은 신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용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여 이해하고 그러한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변화 및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도서관들은 또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기술이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 –특히 전자대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OER와 MOOC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은 또한 온라인 교육 제공자들과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에서는 공공도서관들이 ‘호주 개방 대학교(Open University Australia)’와 함께 지역 학생들을 연결하고 스터디 그룹의 결성을 지원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다. 호주의 공공도서관들은 또한 도서관의 건물에서 MOOC과 기타 학습 제품의 사용을 증진하는데도 관심을 보였다. 하나의 예로, 린다닷컴(Lynda.com) 등이 제공하는 수천 개의 온라인 강좌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유럽의 동향보고서 논의는 2013년 8월 이후 15개국에 걸쳐 개최된 40여 개의 행사와 토론회를 통해 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모든 도서관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다양한 공통 주제들이 드러났다.

저작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전자대출을 둘러싼 새로운 도전과제

이탈리아의 토론에서는 디지털 출판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제약과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2001년 정보사회지침(2001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과 '2006년 대여 및 대출권 지침(2006 Rental and Lending Rights Directive)'을 포함한 EU 법률에 대한 현재의 해석에 따르면, 도서관은 전자책을 대출하거나 디지털 보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기반이 없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에서의 토론에서는 도서관과 다른 민간부문 정보제공자들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전자대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스웨덴에서의 논의는 또한 사서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취득, 저장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과 법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라이버시의 쇠퇴는 통제의 수단인가 아니면 역량강화의 기회인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는 동향보고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 진행된 거의 모든 논의에서 다루어진 핵심 주제 중 하나였다. 덴마크에서는 동향보고서가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 도서관 이해관계자들 간의 폭넓은 논의를 촉발했다. 첩보, 감시, 시민 감시, 내부고발에 의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현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이제 개인과 특수이해집단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이 국가안보나 테러리즘의 척결이라는 주장 하에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 영역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광고를 이용하는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플랫폼과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환경은 또한 시민들에게 정치인들과 재계의 대표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기회를 제공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 및 경제적 엘리트들이 갖고 있던 권력은 기밀성과

침묵을 기반으로 했다.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이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투명성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똑같은 기술들이 시민적 역량과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의 논의는 또한 정보 보안과 데이터 보호 문제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는 것과 관련한 사서들의 역할에 집중되었다. 에스토니아의 사서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침이 부재하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는 법에 관한 공통된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사서들이 크게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논의에서는 사서들이 일상적 활동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갖는 중요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의 사서들은 도서관 시스템에 잡힌 개인 정보를 사서들이 처리하고, 공유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을 이용자들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 보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사서들 간의 기술 및 경쟁력 격차를 좁히는 일

모든 국가적 논의들의 공통된 주제는 디지털 시대에 이용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서들이 새로운 기술과 경쟁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핀란드에서의 논의는 스마트폰/태블릿의 사용과 관련한 내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또 많은 사서가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책의 관리, 관련 저작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률 등 신기술의 문제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스웨덴에서의 논의는 많은 사서가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포용할 준비가 충분치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면서 사서들 간의 경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사서들이 저작권과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의 논의에서도 사서들이 경쟁력 격차를 줄이고 신기술이 가져오는 기회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사서들은 동향보고서의 핵심 주제와 그것이 에스토니아 사회에 갖는 구체적인 함의를 연결하는, 도서관 전문가들을 위한 새로운 강좌들을 개발할 것을 권했다. 또한, 도서관을 위한 공통된 정보 기술 자문 시스템이 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탈리아에서의 논의에서도 사서들이 디지털 역량과 신기술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협력의 강화

독일과 스위스, 영국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나온 또 다른 의견들은 지역, 국가, 국제적 단위에서 도서관 이해관계자들 간의 더 큰 전략적 비전과 협력의 필요성을 집중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논의는 유럽 사서 간의 연대를 증진하는 일이 강조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도서관들을 위한 2016년도 미션 선언문과 2016년도 커리큘럼 제안서의 개발 등 일련의 전략적 사업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동향보고서가 오스트리아 전체 도서관에서 공통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조사하는 'SWOT 분석(SWOT analysis)² 매트릭스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덴마크에서의 논의 역시 도서관이 국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서관은 또 초국적 기관으로서 효과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인쇄/디지털 정보에 대한 무상의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 간 초국적 협력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논의는 또한 도서관계 전반에서 더욱 큰 전략적 협력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도서관의 ICT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에스토니아의 모든 도서관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권고로는 에스토니아의 도서관 대표들이 월 1회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웨덴과 핀란드에서의 논의 역시 도서관이 디지털 사회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사서들이 국가적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할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고, 정책, 정보 기술 서비스, 인프라 등 포괄적인 사안에서 지방정부와 더욱 긴

밀히 협력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도서관은 원칙, 디지털 기회,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동향보고서와 관련한 유럽의 논의에서 지적된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급속히 발전하는 전 세계의 정보 환경에서 도서관의 미래 역할을 규명하여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도서관이 도서관 서비스에 내재된 사회적, 참여적 성격을 이용하여 대중과 정보 자원 사이에서 혁신적이고 수평적인 중재자로 변신하여 다시 활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공통된 주제는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서관 서비스를 그들의 요구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었다.

여러 논의에서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기능만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진단하는 일이 새로운 도서관 전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잠재적으로 자가출판(self-publishing),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³', 디지털 콘텐츠 생성과 관련한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포함한다. 또 다른 논의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을 업데이트할 방법에 집중했다. 도서관은 언제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보 문해성을 증진한다는 구체적인 지속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었다. 동시에 사서들은 '최적의 효과와 최대의 사용자 혜택을 위해 물리적인 도서관 공간의 이용법을 재구성하는 일을 포함해서- 일부 전통적인 서비스와 활동을 포기하거나 재상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

스웨덴에서의 논의는 경제적, 문화적 소외계층 또는 저학력 인구집단 등 구체적인 대상집단들과 연결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도서관이 새롭게 혁신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증진할 방법을 찾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스토니아의 논의에서는 유효하고 중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관문으로써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발 및 학습센터로써 도서관을 재브랜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덴마크의 사서들은 정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런 데도, 사서직의 전통적인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 원칙들과 연결하여 미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다. 디지털 변화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서들이 그 변화의 곡선을 앞서가야 함에도, 디지털 사회는 여전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핵심 가치와 원칙들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사회는 민주주의와 대화, 계몽을 증진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

² 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³ 대중을 제품이나 창작물 생산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할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대화와 소통이 가상공간에서 일어나건 아날로그 공간에서 일어나건 간에 도서관은 여전히 데이터와 사실(fact), 정보, 지식으로 그러한 논의들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 이면의 의제를 의심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지역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지역의 도서관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은 동향보고서에 관한 회의와 행사들이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다수의 이슈가 주목 받았다.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결성 문제를 극복하는 일

멕시코에서의 논의는 초연결 디지털 사회의 발전으로 도서관이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대상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지역의 제한적인 연결성은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보편적인 제공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 33개 남미 국가(6억1천6백만 명) 중 24개국만이 가정 내 인터넷 보급률이 50%에 달한다. 쿠바는 가구의 43%만이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MOOC은 물리적인 도서관 건물을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

전 세계 정보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는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과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검토 및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 그리고 사서들을 위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에 OER과 MOOC이 포함되어야 한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의 도서관들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또 공식/비공식적 온라인 학습 경로에 대한 인증 관련 문제들이 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서는 이와 함께 교육 커리큘럼에서 OER이 갖는 함의, 도서관정보학과 관련된 윤리적, 문화적, 정치적 가치들을 조사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신기술은 지역사회를 강화하는가 또는 저해하는가?

기업 마케팅으로 홍보되는 디지털 장치에 사람들이 현혹됨으로써 신기술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비인간화할 가능성에 대해 흥미로운 점들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연결성과 기기가 개인주의적이고 고립된 행동들을 유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응집을 저해하고,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를 단절시키고, 스마트 오브젝트를 숭배하는 대신 우리의 관계를 비인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사서들은 맹목적으로 신기술의 이점을 옹호하는 대신 비판적 사고와 증거를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를 지원하고 증진하는 인간 중심적 접근법들을 지속해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서들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디지털, 문화의 변화를 온전히 흡수하고 포용할 수 있는가?

동향보고서에서 적시된 디지털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했다. 새로운 디지털 기회는 도서관이 시민 참여를 증진하고 동시에 더욱 보편적인 서비스(예. 디지털을 통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설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또 도서관이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식이 의미하는 바와 열린 정부를 둘러싼 디지털 논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남미 지역 전반에서 도서관의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 일부 도서관 공동체에서 무관심이 증가하고 지역도서관협회의 연대가 하락하는 등, 도서관의 성공적인 변신과 발전에 잠재적으로 장애가 되는 점들도 보고되었다.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조율된 대응책을 개발하기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조율된 접근법을 개발하고자 연구소와 문헌정보학과, 도서관네트워크, 전국도서관협회들이 지속해서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도서관의 운영 여건과 기술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지역 내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물리적, 가상적 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 행위자들 간의 이러한 연대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적 발전을 증진하고 사회적 불의를 척결할 수 있는 필수 정보에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역량을 갖고 있다.

북아메리카

이 섹션은 북아메리카 지역 논의에서 드러난 공통 주제들을 설명하며, 학술도서관의 관점에서 본 IFLA 동향보고서의 함의를 탐색한다.

도서관의 미래를 위한 센터

2013년 8월 IFLA 동향보고서의 발간에 이어서, 미국도서관협회(ALA)는 2013년 10월에 '미래도서관센터(Centre for Future Libraries)'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5월에 출범한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사서들이 도서관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동향을 더 잘 이해하도록 정보 자원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도서관센터는 다양한 관련 동향들을 분석하고 범주화하는 온라인 포털을 개발했는데, 이러한 동향 중 다수는 IFLA 동향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관련 자원들을 참조하거나 직접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자원들을 개발하기 전에 ALA는 2014년 5월에 도서관의 미래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열고 IFLA 동향보고서에서 적시된 다수의 주제를 탐색했다.

도서관 서비스와 도서관의 미래 역할에 대한 재구상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서 도서관은 "보편적인 것 이상을 해야" 한다. 도서관은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회들을 활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상하고 탈바꿈해야 한다. 새로운 청중과 기존의 청중들을 규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위험감수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처음에는 논의의 상당 부분이 200년 전이 아니라 오늘날 도서관이라는 것을 처음 발명하고 제안한다면 그 도서관의 개념이 무엇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적인 질문은 '도서관을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가상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이다. 일부 기능은 디지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지는 상황에서, 최대의 공동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물리적인 도서관 공간과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또 디지털 영역으로 옮겨가는 서비스와 활동, 기능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디지털화될 수 없는 것들(예, 직접 참여와 인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점점 더 가치를 두게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특정 유형의 도서관 서비스와 기능에 영속적이며 고유한 장점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디지털에 의한 교육시장의 교란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가?

교육시장의 교란과 OER 및 MOOC의 증가하는 인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단일한 조립식 공정과 같은 학습의 가치가 감소하고, 교육 콘텐츠와 학습, 전달, 인증이 분리되는 동향은 도서관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신기술에 의해 촉진되는 공식적/비공식적 학습 기회들에 대해 유연하고 범용화된(commoditized) 접근성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 공간과 인프라를 이에 맞게 재개발할 수 있는가? 그 예로 제시된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도서관은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에 대한 관문의 (그리고 사서는 진행자이나 안내자로서) 기능을 한다. 또 도서관이 창의적이고 쌍방향적인 새로운 학습 경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인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고, 추적하고, 인증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논의되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물리적 역할과 디지털적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명은 무엇인가? 도서관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인구학적 요소들을 물리적/가상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지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요소로 재브랜드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목소리들에 다가가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도서관은 소외집단의 불평등과 배제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정보 서비스와 신기술, 물리적 공간을 통합할 역량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성과를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도서관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행복한 사건으로” 발전했으나 “이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은 도서관의 성과와 사회적 기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사서들은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개발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도서관은 최근 언론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공유 경제의 원칙들을 처음 개발한 개척자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른 이들은 또 “신뢰”가 여전히 도서관 브랜드와 서비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보았다. 도서관이 ‘안정적인 과정에 의해 규정되는 예측 불가능한 관계’라는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나 ‘지속해서 변화하는 과정들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된 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템플릿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다.

도서관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들

한 발표자는 사서들이 미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건 간에 미래는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적 발전과 변화하는 교육 관행을 앞서가는 일은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사서들은 더욱 폭넓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다양한 배경의 새로운 사서들을 영입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또 더욱 폭넓은 청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존 도서관 이용자들도 지속해서 보유해야 한다. 또 하나의 주된 관심은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변화하는 기대에 부응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이다. 또 그러한 적응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 단순히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대중적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냐는 점이다. 또 일각에서는 도서관이 “모든 이를 위한 모든 것”이 되고자 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역적 가치와 영향이 가장 높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술도서관의 관점:

이 섹션에서 설정한 주제들은 일차적으로 2015년 2월 ‘도서관 행정 저널(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에 발표된 논문 ‘IFLA 동향보고서: 도서관 계획에서 벽을 넘어서 보기(The IFLA Trend Report: Looking Beyond the Walls in Library Planning)⁴에서 가져온 것이다.

⁴ IFLA Trend Report: Looking Beyond the Walls in Library Planning, Lynne Marie Rudasill, Th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00:1-12, 2015년 2월 23일

학습자들은 여전히 디지털과 대면 학습 환경을 모두 필요로 한다

학생들을 위한 정보 문해성, 특히 학술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목록, 아카이브의 사용은 아직 도서관의 핵심적인 지도 영역이다. MOOC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온라인과 대면 수단이 혼합된 학습 환경을 선호하며, 서로 다른 학습자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갖고 있다(하나의 방식이 모두에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또 모바일 기기(스마트폰과 태블릿)를 통해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의 기획과 구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생들은 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며,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사회적 공간과 학술적인 공간을 분명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또 신기술 교육이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서보다는 다른 과목들 안에 통합될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모든 주제 영역 내에서 디지털 기술이 점차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기술은 계속해서 양날의 칼로 남아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용자와 새로운 기술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위협한다. 개인들이 연결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기회들이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과 사회집단을 감시하고 그들에 대해 상세하고 광범위한 프로파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도서관이 직면할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은 이용자 경험을 최대화하면서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은 최소화하도록 사용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OER은 또한 학생들의 성공에 필요한 연구 도구들을 제공하는 도전을 도서관에 제시한다. 과학 출판물에 대한 개방적 접근은 사서와 출판사가 협력하여 새로운 정보제공 모델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도서관은 기존의 참고, 지침, 장서 개발 제공 모델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사서들은 어떻게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혁신을 포용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기술이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에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을 증진하거나 대체할 역량을 모두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국경 없는 과학 애니메이션(Scientific Animations Without Borders, SAWBO)’ 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도구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예는 학생과 연구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매력적인 정보 강좌들을 개발하는 일이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4. 주요 활동 및 사례연구 요약

| 지역 | 행사 및 논의 | 행동 및 출판 |
|--------------------|--|--|
| 아프리카 및 중동 | | |
| 말라위 | 2014년 8월- 케냐, 가나, 우간다, 남아프리카 대표들과 함께 동향보고서 발표 및 패널 토의 | 토론 내용 및 발표자료의 요약본이 2014년도 SCECSAL 보고서에 포함됨 |
| 남아프리카 | 2015년 8월-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81차 IFLA 총회에서 도나 쉬더(Donna Scheeder) IFLA 회장이 동향보고서에서 시작된 지역 및 국가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IFLA의 '변화 의제(Change Agenda)'를 구축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함 | |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 |
| 호주 | 2013년 9월- '남호주 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ies South Australia)' 연례 총회에서 호주문헌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 회장의 발표 2013년 10월- ALIA가 '도서관 및 정보학계의 미래' 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IFLA 동향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룸 2014년 9월- ALIA 전국 총회에서 줄리 레이(Julie Rae) 회장의 미래 동향에 대한 발표 2014년 2월- 캔버라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 회의(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in Asia and Oceania, Canberra)'에서 동향보고서 논의 | 2014년 5월- ALIA가 '도서관 및 정보학계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와 함께, 전문가, 수집기관,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 학교 도서관, 제3도서관에 초점을 맞춘 6개의 보고서를 발행함. 이 보고서들은 또 행동 목록을 포함하고 있음. |
| 중국 | 2014년 7월- 7차 상하이 국제도서관포럼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2014년 9월- 컴퓨터 공학 및 정보통신 학교 정보관리학과(창춘 소재)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2014년 10월- 중국 연례도서관총회에서 연례보고서 발표 | |
| 인도 | 2016년 3월- IFLA 사무총장의 동향보고서 발표 | |

| 지역 | 행사 및 논의 | 행동 및 출판 |
|-------|--|---|
| 뉴질랜드 | 2013년 10월- '뉴질랜드 문헌정보협회(New Zealand Library & Information Association)' 연례총회(해밀튼)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및 워크숍 | |
| 한국 | 2014년 5월- 세계전자학회총회(서울)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 |
| 태국 | 2014년 5월- 동남아시아 사서총회(치앙마이)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 |
| 유럽 | | |
| 오스트리아 | 2014년 5월-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비엔나 총회 오스트리아의 9개 주에서 추가로 토론행사가 개최됨. | IFLA 동향보고서 SWOT 분석 매트릭스 2016년도 미션 선언문(예정) 오스트리아 사서들을 위한 2016년도 커리큘럼(2016년 말까지 오스트리아 문화부와 합의 예정) |
| 불가리아 | 2014년 6월- '불가리아문헌정보협회(Bulgarian Library & Information Association)' 연례 모임에서 동향보고서 워크숍 | |
| 크로아티아 | 2014년 10월- 두브로브니크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 |
| 덴마크 | 2013년 10월- '덴마크도서관협회 집행위원회(Danish Library Association's Executive Committee)'에서 동향보고서 논의함. 2013년 11월- '알보르그 공공도서관(Aalborg Public Library)'이 동향보고서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덴마크 내의 모든 중앙도서관을 초청함 2014년 3월- 덴마크도서관협회(Danish Library Association, DLA)의 연례 총회에서 현재 동향, 시민들의 기대, 미래의 문화기관에 초점을 맞춤 2015년 4월- 디지털 세계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IFLA 동향보고서에 대한 고찰 | |
| 에스토니아 | 2013-2016- "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접근"에 관한 에스토니아 실무단의 발족에 이어, 에스토니아의 사서들은 동향보고서의 함의에 관한 세미나, 행사, 국제 발표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조직함.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전체 목록은 에스토니아 사례연구 섹션 참조. | 2015년 1월- IFLA 동향보고서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결론 2016년 5월- ELA 회원들이 승인한 비전 선언문 예정- 에스토니아 도서관을 위한 전략적 발전/사서들을 위한 모범 관행 지침서 |

| 지역 | 행사 및 논의 | 행동 및 출판 |
|------|---|--|
| 핀란드 | <p>2014-2015년- 핀란드도서관협회(Finnish Library Association, FLA)는 동향보고서의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3개의 지명도 있는 전국적 회의를 개최함. 5개 주요 도시의 도서관들은 또 도서관 직원들이 현재의 관행과 접근법들을 분석하도록 워크숍 프로그램을 시작함.</p> <p>2014년 5월- FLA 회장 주재 회의: '강한 도서관, 강한 사회 (Strong Libraries, Strong Societies)'</p> <p>2015년 2월- 모바일 세상에서의 전자정보의 관리에 관한 유럽중앙은행 워크숍에서 동향보고서 발표</p> <p>2015년 2월- 국제세미나 "앞서 가기: 동향의 인지와 그에 대한 대응(Ahead of the curve: recognizing and reacting to growing trends)(헬싱키)"</p> | <p>2015년- 전자대출 서비스의 개발 및 헬싱키시립도서관(Helsinki Metropolitan Area Libraries, HELMET)의 시범 전자대출제도의 확장, 핀란드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대한 라이선스 모델에 초점을 맞춤</p> <p>'바사 시립도서관(Vaasa City Library)'이 신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적 발전모임을 형성함</p> <p>'포르부 시립도서관(Porvoo City Library)'이 포르부시 전략에서 동향보고서를 참조함</p> |
| 프랑스 | <p>2014년 6월- 프랑스도서관협회(French Library Association) 연례총회(파리)에서 동향보고서 발표</p> <p>2014년 8월- 세계도서관정보대회(리옹)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및 워크숍</p> <p>2016년 1월- '도서관 및 정보 교육과 연구를 위한 유럽연합(EUCLID)'이 지원하는 문헌정보학 심포지엄인 BOBCATSSS 연례총회(리옹)에서 동향보고서 발표</p> | |
| 독일 | <p>2014년 6월- 동향보고서 발표 및 논의(브레멘 사서들)</p> <p>2014년 6월-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회담(EURODIG)(베를린)에서 동향보고서 워크숍</p> <p>2014년 11월- 헤센 연방공공도서관서비스에서 동향보고서 발표</p> <p>2014년 10월- 베를리너 도서관 과학콜로키엄에서 동향보고서 발표</p> | |
| 그리스 | <p>2014년 5월- 유럽도서관정보문서협회(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 EBLIDA)와 유럽공공도서관에 관한 그리스사무국(National Authorities on Public Libraries in Europe, NAPLE) 총회(아테네)에서 FLA 동향보고서에 관한 패널 세션</p> | |
| 이탈리아 | <p>2013년 11월- ILA 연례총회(로마)에서 동향보고서 발표</p> <p>2014년 10월- 도서관 로드맵 회의(플로렌스)</p> <p>2014년 10월- 도서관 동향 회의(밀라노)</p> <p>2015년 3월- 동향 검토 회의(밀라노)</p> <p>2015년 3월- FLA 회장 당선자와 실시간 채팅</p> | <p>이탈리아도서관협회(Italian Library Association, ILA)는 국제적으로 사서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동향보고서 전용 온라인 토론 포럼(영어 섹션 포함)을 시작함</p> |
| 노르웨이 | <p>2014년 3월- 노르웨이 도서관협회 전국대회(Norwegian Library Association National Congress)(트론헤임)에서 동향보고서 발표</p> | |

| 지역 | 행사 및 논의 | 행동 및 출판 |
|----------------|---|---|
| 포르투갈 | 2014년 9월- 도서관어드보커시총회(리스본)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 |
| 러시아 | 2013년 9월- IFLA 회장(당시 시니카 시필라(Sinikka Sipilä))이 국제회의 "인터넷과 정보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변화"(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동향보고서에 대해 발표함 | |
| 슬로바키아 | 2014년 9월- 2014년 CASLIN 컨퍼런스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 |
| 터키 | 2014년 5월- '도서관에서의 양적 및 질적 측정' 컨퍼런스(이스탄불)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 |
| 영국 | 2013년 9월-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 Information Professionals, CLIP)'에서 동향보고서 논의를 주최함 | |
|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지역 | | |
| 콜롬비아 | 2014년 11월- 하베리아나대학교(Javeriana University)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 |
| 쿠바 | 2014년 4월- 13차 연례 국제정보대회(하바나)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 |
| 멕시코 | 2014년 11월-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지역을 위한 동향보고서 웹세미나 2014년 3월- 동향보고서가 멕시코도서관협회와 남미지역 문헌정보학자에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기 위해 2일간 컨퍼런스 개최(멕시코 시티) 2014년 6월- 남미에서의 동향보고서에 관한 2일에 걸친 후속 컨퍼런스 | 2015년- 멕시코자율대학교(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는 동향보고서에서 강조된 사항들에 대해 500페이지에 달하는 전문가 의견 및 학술 논문(총 2편)을 발행함 |
| 푸에르토리코 | 2014년 12월- 사서협회 연례총회 | |
| 북미 | | |
| 캐나다 | 2013년 11월- 5차 퀘벡정보협회 총회(몬트리올)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2016년 4월- IFLA 회장 주재 회의(토론토)에서 지역 및 국가적 동향보고서 논의와 주제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계를 위한 변화 의제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춤 | |
| 미국 | 2013년 10월- 미국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회원총회(버지니아)에서 동향보고서 발표 및 논의 2014년 5월- '도서관의 미래에 관한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동향보고서에 제시된 다수의 주제들을 논의함 | |

사례연구 - 호주

IFLA 동향보고서는 호주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현재 도서관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들과 기회들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다. 2013년 9월,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의 줄리 레이(Julie Rae)회장은 남 호주 공공도서관협회의 연례총회에서 IFLA 동향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다. 레이 회장은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도서관은 세 가지 “덧”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물리적인 덧으로, 유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기존의 투자가 보다 신선하고 상관성 있는 투자를 막는 것이다. 둘째, 심리적인 덧은 도서관 리더들이 과거에 기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방법들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것으로 기존의 방법들을 대체해야 하는 시기를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전략적 덧은 도서관이 현재 이용자들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춰서 미래 이용자들의 욕구를 예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3년 10월, ALIA는 ‘문헌정보학계 미래에 관한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50여 명의 도서관 관장들이 모였다. 이 회의는 2013년 초에 ALIA가 시작한 자문 과정의 하나로, 그 목적은 미래학자, 미디어 전문가, 작가, 출판사(그리고 ALIA 회원들)로부터 미래의 핵심 동향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다. IFLA 동향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제들은 이 자문 과정 후반의 단계들을 구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2014년 5월, ALIA는 ‘문헌정보학계의 미래(Future of the LIS Profession)’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다섯 가지 IFLA 동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문 과정을 바탕으로 특히 호주의 도서관에 중요한 10가지 핵심 주제들을 규명하였다. 여기에는 현재로서는 상상 불가능한 신기술들의 영향, 진정으로 세계화된 교육시장의 도래, 그리고 기업세계의 급진적인 변화가 포함되었다. 주 보고서와 함께, 문헌정보학계 전문가, 수집기관,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 제3 도서관에 대한 기회와 도전에 초점을 맞춘 6개의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이 보고서들은 호주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혁신들을 조사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국가적 보물들(역사적 원고, 지도, 일지, 사진)을 직접 볼 수 있는 능력, 링크로 연결된 데이터를 통해 매끄러운 디지털 경험을 할 가능성, 그리고 지역사회 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이 포함되었다.

ALIA는 또 이 보고서들에서 드러난 주요 행동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ALIA가 교육자들과 협력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이 지속해서 신기술 강좌들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과 2020년까지 협회 회원의 필수 요건으로써 평생학습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ALIA는 또 협회의 전문성 개발 교육이 위 보고서들에서 규정된 동향들을 반영하도록 갱신하고, 지역사회 출판 및 빅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기술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디지털 콘텐츠 및 전자책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개혁과 디지털 대출권의 도입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며, 도서관과 콘텐츠 생성자 및 출판사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미래의 지원활동과 관련한 또 다른 영역으로는 문헌정보 전문가들이 잠재적으로는 기관의 개인정보 입법 감시자로 활동하면서 빅데이터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ALIA는 또 “정보 전문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매력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인력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기로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ALIA는 변화하는 동향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회원들이 국내외의 혁신을 계속해서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례연구 - 오스트리아

2014년 5월, 오스트리아도서관협회(Austrian Library Association)는 연 2회 개최되는 총회에서 동향보고서의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했다. 비엔나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컨퍼런스에는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온 450여 명의 사서가 참석했다. 이 행사는 도서관계의 가장 앞선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기초연설자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른 미디어 및 산업 영역들로부터 새로운 통찰과 사고의 리더십 원칙들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 행사의 또 다른 목적은 450여 명의 참석자로부터 전문성과 의견을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⁵’하여 오스트리아의 도서관들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동향보고서의 핵심 요소들과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일련의 강점/약점과 기회/위협을 분석하는

⁵ 대중을 제품이나 창작물 생산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SWOT 분석(SWOT analysis)' 세션을 조직하여 현재 오스트리아의 도서관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다양한 역량, 능력, 우선순위들과 IFLA의 다섯 가지 동향을 비교했다.

비엔나 총회에 이어서, 오스트리아도서관협회는 오스트리아의 9개 연방 주 전체에서 지역 토론회와 세미나들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오스트리아의 도서관들이 각자의 정보환경에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과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의 사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었다.

비엔나 총회에서 SWOT 분석 결과와 이후 이어진 지역 도서관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스트리아도서관협회는 오스트리아(공공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이 커리큘럼은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모듈을 포함해서 동향보고서에서 적시된 주요 변화들을 반영하였다. 이 커리큘럼 제안서는 오스트리아 문화부와 논의되었으며, 2016년 말에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리아도서관협회는 또 지역의 동향보고서 논의들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도서관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례연구 -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IFLA 동향보고서가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자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덴마크도서관협회(DLA)에 따르면, 다섯 가지 동향은 논의의 촉매제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과제와 영역들에 사서들과 정치인, 기타 의사결정자들, DLA 회원들의 관심을 끄는 역할을 했다.

IFLA 동향보고서가 나온 직후, DLA 집행위원회는 2013년 10월에 이에 대한 논의를 했다. 11월에는 '알보르그 공공도서관'이 동향보고서에 대한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덴마크의 모든 중앙도서관을 초대했다. 같은 달에 또 덴마크문화국(Danish Agency for Culture)과 덴마크방송(Danish Broadcasting Corporation)은 "문화 영역의 주요 디지털 도전과제에 관한 마스터클래스(Masterclass on key digital challenges for the cultural sector)"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동향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2014년 1월에는 동향보고서를 덴마크어로 번역하였고, 2014년 3월에는 "현재의 동향, 시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의 문화기관"이라는 주제 하에 DLA 연례총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동향보고서가 논의되었다. 이 논의는 2014년과 2015년 덴마크 도서관박람회(Bogforum)에서 동향보고서를 주제로 한 논의들, 2014년 11월 "디지털 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2015년 11월 "디지털 발자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 등, 많은 후속 회의와 행사들을 촉발했다.

DLA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에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다. 동향보고서의 핵심 요소 중 사서들 사이에서 가장 큰 흥미를 유발한 것은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둘러싼 경계들이었다. 후자에 관한 논의는 위키리크스(Wikileaks)⁶ 발행과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폭로한 미국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 등이 화제가 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2014년 5월에는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가 더욱 큰 대중적, 국가적 논의의 초점이 되었는데, 덴마크 카드결제사인 넷츠(Nets)와 코펜하겐의 주간지 '세 오그 호르(Se og Hør)'의 스캔들이 기폭제가 되었다. 넷츠는 전직 총리, 덴마크 왕실, 연예인 등 몇몇 유명인사들을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해 이들의 신용카드 거래 정보를 고의로 세 오그 호르에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덴마크 신문사인 베를링스케(Berlingske)에 서신을 보내서 "오르후스에서 글을 쓰거나 이메일을 쓰는 사람들, 오덴세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 코펜하겐에서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정보가 분석되며, 국가정보국만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신문사까지도 이런 개인정보를 저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감시'란 특별히 인터넷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정부와 기업이 특정 개인과 사회집단의 상세한 프로파일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러한 데이터 수집이 국가안보나 시민에게 유익한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근거하에 정당화되곤 한다. 동시에 다양한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여 개인의 기호와 행동,

⁶ 정부나 기업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비밀 문서를 폭로하는 웹사이트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태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적인 정보를 구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데이터를 오용/악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DIA는 또 이러한 동향이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디지털 정보가 점점 더 공개적으로 제공되면서 시민들이 정치권과 재계 인사들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기제를 갖게 된 점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최상층을 보호해왔던 비밀과 침묵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적 책임성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드러난 잠재적으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덴마크의 데이터보호법이 도서관 이용자들의 새로운 기대와 행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사례연구 - 에스토니아

2013년 8월 동향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에스토니아의 사서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 동향이 에스토니아의 도서관과 사서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IFLA 동향보고서의 함의를 도서관 공동체에 전달하기 위해 에스토니아도서관협회(Estonian Library Association, ELA)는 2013년 11월에 도서관을 위한 “신선한 접근법(Fresh Approach)”에 관한 에스토니아 실무단을 조직했다. 이 실무단은 공공도서관, 학교

| 날짜 | 행동 |
|--------------|---|
| 2013년 11월 | 에스토니아도서관협회가 도서관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실무단에 참여할 것을 요청함 |
| 2014년 1-4월 | ELA 실무단이 계속해서 IFLA 동향보고서를 가지고 작업하면서 에스토니아 도서관 저널(Estonian Library Journal)에 일차적인 고찰들을 게재함 |
| 2014년 5월 | 자문적 성격의 ‘월드 카페(World Café)’ 구조를 지닌 토론회를 조직함 |
| 2014년 6-9월 | 지속적으로 세미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함 - 그 결과는 2014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IFLA 회장 주재 회의에서 에스토니아 문화부 도서관 자문관이 발표함 |
| 2014년 10-12월 | 이전 논의들에서 나온 결과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고, 계속해서 에스토니아의 여러 지역에서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구체적인 도서관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토론회 행사를 진행함 |
| 2015년 1월 | 이전의 논의와 자문을 바탕으로 “IFLA 동향보고서에 관한 에스토니아의 결론” 보고서를 발행함 |
| 2015년 2월 | 베로니카 로드셉 리누푸(Veronika Raudsepp Linnupuu)가 헬싱키 동향보고서 세미나 “앞서 가기: 동향의 인지와 그에 대한 대응”에서 “에스토니아의 도서관과 IFLA 동향보고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선한 바람”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
| 2015년 4월 | ELA 실무단이 프라이버시와 저작권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월드 카페 행사를 조직함 |
| 2015년 6월 | 베로니카 로드셉 리누푸가 리투아니아에서 에스토니아에 대한 IFLA 동향보고서의 함의에 대해 발표함 |
| 2015년 가을-겨울 | ELA 실무단이 에스토니아의 도서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IFLA 동향보고서에서 나열한 여러 주제들을 바탕으로 에스토니아의 도서관들을 위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함 |
| 2015년 10월 | 베로니카 로드셉 리누푸가 제10차 발틱해 사서총회(리가)에서 동향보고서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논의들을 소개함 |
| 2016년 3월 | 에스토니아 도서관 비전 선언문이 ELA 회원들에 의해 승인됨 |
| 2016년 5월 | ELA 실무단이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세미나/월드 카페 행사 개최 |

도서관, 학술도서관, 문헌정보학 교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서의 역할을 둘러싼 광범위한 논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실무단 단장에 따르면 “**동향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통합하고, 논의하고, 이해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잠재적인 솔루션을 조사하고 있다.

2014년 5월 이후 ELA 실무단은 다양한 세미나, 행사, 토론, 국제 회의의 참석 기회를 조직했다. 이 프로그램의 몇몇 핵심 요소들이 위의 표에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2015년 1월에 완료된 'FLA 동향보고서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결론'과 2016년 5월 ELA 회원들이 승인한 비전 선언문 등 일련의 문서로 작성되었다. 이와 함께 ELA와 ELA 실무단은 에스토니아 도서관들을 위한 보다 상세한 전략적 발전 계획과, '사서들을 위한 모범 관행 지침서(Librarian's Good Practice Guidebook)' 작업을 했는데, 이 두 사업 모두 동향보고서에 의해 촉발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2016년 후반에 발간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ELA는 에스토니아 도서관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출판될 전략 문서와 지침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 가지 주된 권고는 '에스토니아 도서관 발전센터(Estonian Libraries Development Centre)'의 설립을 통해 도서관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 센터의 주된 목적은 이용자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의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솔루션과 자원을 규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도서관 네트워크는 이러한 유형의 중요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활동을 수행할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ELA는 에스토니아 문화부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 제안서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있다.

사례연구 - 핀란드

2014-2015년에 핀란드도서관협회(FLA)는 세 개의 전국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사서들이 FLA 동향보고서의 함의, 특히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 회의들은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증진하는 문제와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촉진했다. 5개 주요 도시에 자리한 도서관들은 또한 워크숍을 열어 도서관 직원들이 동향보고서에서 연구된 5가지 주요 동향과 관련해 현재의 업무 관행과

접근법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향보고서는 핀란드의 과학도서관계(scientific library)의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또한, 많은 지역 도서관 시스템들은 미래의 예산과 전략에 관한 기획 문서에서 동향보고서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바사 시립도서관(Vaasa City Library)'은 새로운 지역발전단체를 발족해 도서관의 예산 계획에 신기술이 정보환경에 끼치는 영향(동향보고서의 동향 5)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 포르부 시립도서관은 세미나를 열고 곧 있을 '시 전략'과 관련하여 동향보고서가 갖는 의미를 검토했다. 공공도서관협의회(Council for Public Libraries)도 그들의 최근 전략 문서 "2016-2020년도 공공도서관의 미래(The Way Forward for Public Libraries 2016-2020)"에서 동향보고서를 언급했다. FLA 회장에 따르면, 동향보고서는 "사회와 우리의 정보환경에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다. 동향보고서는 -단순히 책의 보관소가 아니라 지식, 아이디어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플랫폼으로써- 도서관이 보이고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도록 도왔다. 동향보고서의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는 핀란드의 사서들이 전자대출 서비스의 제공에 예전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FLA에 따르면, 동향보고서가 디지털 콘텐츠의 선택과 제공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를 강조한 것이 주류 도서관 서비스의 향후 발전에서 전자대출의 전략적 중요성에 무게를 더했다. 전자대출을 도서관 관련 국가적 의제의 맨 위에 놓은 것은 헬싱키시립도서관의 시범 전자대출 시스템과 라이선스 모델이 2015년에 핀란드의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성공적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더 나아가, 동향보고서의 디지털 정보와 콘텐츠에 원격으로 어느 곳에서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의 역량에 대한 강조는 도서관이 물리적 건물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의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물리적 공간의 변화하는 가치의 명제, 즉 상호작용과 협력, 학습 경험의 공유를 위한 지역사회와 장소로서 도서관이 갖는 고유한 역할을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이 조직한 세미나, 교육 세션, 워크숍, 토론회 등에 더하여, 이것은 또 (핀란드 노인협회와 같은) 제3자 기관과의 새로운 협력적 파트너십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인구집단에 매력적이고 콘텐츠가 풍부하고 유관한 활동들을 제공하는 일도 포함한다.

이를 인식하여 2016년 5월에는 도서관협회와 여러 대학에서 선 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단이 문화교육부에 (1928년도 도서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서관 법안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2016년도에 핀란드 의회의 검토를 거쳐 2017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문명과 문화적 산물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평생학습의 기회,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단순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과 대조적으로, 지역의 접근 가능한 물리적 공간으로써 도서관이 갖는 중요한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연구 - 이탈리아

이탈리아도서관협회(ILA)는 IFLA 동향보고서가 이탈리아의 도서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했다. 2013년 8월에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당시 도나 쉬더 IFLA 회장이 2013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이탈리아도서관협회 연례총회에 통찰 (insight) 보고서의 번역본을 제출했다. 이어서 ILA는 동향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 플로렌스에서 열린 '도서관 로드맵 회의', 2014년 10월 밀라노에서 열린 '도서관 동향 회의', 2015년 3월 밀라노에서 열린 '검토 회의' 등 일련의 후속 행사들을 조직했다.

이러한 모든 행사는 다양한 학제의 전문가들이 IFLA의 다섯 가지 동향과 관련하여 발표한 후, 월드 카페 스타일(world café style)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드러난 개념과 핵심 질문, 요약본은 온라인상의 전용 위키-스페이스(Wiki-Space)⁷에 업로드하여 이탈리아의 도서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온라인 토론 위키-스페이스는 또한 영어 섹션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다른 사서들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동향보고서를 주제로 한 이 토론들과 위키-스페이스를 통해 진행된 온라인 논의는 ILA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다수의 도전과제와 우선과제 영역들을 부각했다. ILA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과 다른 정보 제공자들의 경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 결과로 ILA는 EU 차원에서의 EBUDA 활동과 연계하여 도서관의 전자대출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출범했다. ILA는 또 새로운 전자대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도서관에서 더욱 많은 전자책을 제공하기 위해

'MediaLibraryOnLine(MLOL)' 등의 전자책 제공 웹사이트와 협력하였다. 또 도서관이 자가출판, 오픈 액세스 출판, 개방형 연결 데이터(LOD, Linked open data 이하 개방형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적인 영역을 탐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이후 ILA는 또 도서관을 통해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는 문제에도 집중해왔다. 이에 대해 스스로를 교육자로 여기지 않으며 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일부 사서에게서 초기에 어느 정도 반발이 있었다. 현재 평생학습 전략은 대학 도서관과 선진적인 공공도서관 그룹이 이끌고 있다.

동향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논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ILA는 또 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참여적 도서관(participative library)"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둔다. 이는 '도서관이 지식의 광장'이다라는 이탈리아의 오랜 명언이 바탕이다. 도서관은 대화와 상호작용, 지식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고유하고 편안한 공동체의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ILA는 새로운 형태의 공식 및 비공식적 교육 강좌, 협력적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구축 등 도서관이 새롭고 혁신적인 기회와 경험들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특히 지역사회의 디지털 역량과 기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LA에 따르면, IFLA 동향보고서는 이탈리아 도서관들의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개발하기 위한 "행동 계획"으로 작용했다. 동향보고서는 도서관이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태도로 미래에 접근해야 하며, 무엇을 바꿔야 하고 기존에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도서관계의 부활과 재상상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회들을 포용하는 것과 더불어, ILA는 또 지역 및 중앙의 정책결정자들과 관계를 구축하면서 도서관의 잠재적인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에 따라 ILA는 정부의 우선과제, 정책, 프로그램 내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⁷ 온라인 상에서 협동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

5 IFLA의 다섯 가지 동향 중 지속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섹션은 지역적, 국가적으로 진행된 동향보고서 논의에서 나온 핵심 주제들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IFLA 동향들의 지속적인 상관성을 간략히 평가해볼 것이다. 각 동향에 대한 섹션은 또한 2013년 8월에 동향보고서가 나온 이후의 변화들을 참고할 것이다. 각각의 동향은 의도적으로 포괄적인 성격을 띠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는 각 동향이 현재 갖는 함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이 문서에 모두 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도 있다) 설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신기술은 정보에 접근하는 개인들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할 것이다

저작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전자대출

여러 국가에서 동향보고서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전자대출에 집중되었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논의들은 국가의 제한적인 저작권법으로 인한 문제와 그것이 전자대출 사업과 디지털 영화에 대한 공적 접근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끼치는 영향을 부각했다. 일례로, 에스토니아 저작권법 13절에 따르면 시청각 자료를 가정에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화가 에스토니아에 적합한 배급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도서관이 미국의 개별 영화제작사와 직접 협상할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작품들의 대여는 대체로 불가능하다.

이탈리아의 논의는 도서관이 점점 더 다른 정보 제공자들과 경쟁하는 반면, 디지털 출판의 법적 현실은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공적 접근성의 제공자라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환경의 근본적인 특징은 콘텐츠의 물리적 소유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된 디지털 접근성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대체로 이처럼 라이선스 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가 물리적인 도서의 구입에 적용되는 권리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거기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도서관 대출 모델이 의존하는 원칙들을 훼손하였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최초 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⁸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 하에서 물리적인 책을 대출한다. 이 원칙에 따라 도서관은 흔히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⁹법에 따라 그러한 책들을 대여하거나 재판매하는 데 있어서 무제한의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전자책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디지털 소진(digital exhaustion)” 원칙이 없는데, 이는 도서관이 디지털 콘텐츠를 단순히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신, 도서관은 출판사 및 저작권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해야 하며, 그러한 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른 전자대출을 허용한다. 이 상황은 전자대출이 가능한 전자책들이 있는지, 라이선스의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전자대출 서비스의 확실성을 둘러싼 의문들, 디지털 보존의 법적 가능성 등에 대한 도서관의 우려를 높였다.

흥미롭게도 유럽에서는 최근의 그러한 상황 전개로 인해 전자대출이 기존의 저작권법에 근거가 없으며 대신 전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기존의 가정에 대해 잠재적인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2012년에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인터넷 다운로드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¹⁰ 2015년 4월에는 네덜란드의 헤이그 법정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전자대출에 관한 입장을 구체

⁸ 적법한 특정 복제본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독점적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복제본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외교통상용어사전)

⁹ 공중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의 대출로 인하여 저작물의 판매수요가 감소하리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대출횟수 만큼 저작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여권 보상제도 이다.

¹⁰ ECJ Decision, UsedSoft vs. Oracle, 2012 년 7 월 3 일

화¹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헤이그 법정은 현재의 EU 법률¹²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개인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달라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015년 7월에 유럽의회는 도서관이 “사적 용도로, 제한된 기간 동안, 인터넷이나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인에게 디지털 포맷으로 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대여” 하도록 허용하는 저작권 예외규정의 채택을 유럽위원회가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는 발안¹³을 채택했다. 2016년 6월에 유럽사법재판소의 슈푸너(Szpunar) 법무관은 “전자책의 대출은 전통적인 책의 대출과 비슷”하며 특정한 유형의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특정한 유형의 전자대출 서비스는 기존의 EU 법률 하에서 적법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의견서¹⁴를 제출했다. 이 사안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러한 상황 전개는 앞으로 전자책에 공공대출권의 법적 틀과 디지털 소진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온라인 교육은 전 세계의 학습을 민주화하고 교란할 것이다.

OER과 MOOC도 동향보고서의 논의에서 드러난 주요한 성장 영역이었다. 아프리카에서의 논의는 OER과 MOOC이 시민에게 상당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이처럼 중요한 자원들에 대한 공적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들을 도서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가나에서는 사서들이 새로운 영역에서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학습 도구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남미/카리브해 연안지역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의 문헌정보학과들¹⁵이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MOOC를 개발하고 있다.

¹¹ ECJ Referral C-174/15, 2015년 4월 17일

¹² 2001년 정보사회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과 2006년 대출권지침(Rental and Lending Rights Directive)

¹³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특정 측면들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2015년 7월 9일

¹⁴ 유럽사법재판소 보도자료, 사례 C-174/15에 대한 법무관의 의견서, 2016년 6월 16일

¹⁵ Costa Rican University LIS School, the UdeA - EIB (Colombian LIS School), The LIS School of Chiapas, San Luis Potosi, the Mexican Government LIS School, and the LIS School of the UNAM

북미의 논의는 MOOC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디지털과 대면 방법이 혼합된 학습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의 지도를 통해 온라인 학습 경로를 지원하고, 학생 상호 간 지원과 협력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 유럽과 호주, 북미에서는 디지털에 의해 교육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로운 시장 동향에서는 단선적인 조립식 라인 스타일의 학습이 갖는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강의, 커리큘럼 개발, 학습 콘텐츠, 인증 제공과 관련한 전통적인 구조가 바뀌고 있다. 도서관은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도서관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은 학습자들이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받는 단선적인 산업적 과정보다는 전체 생애과정에 걸친, 반복적이고 모듈적인 주문형 학습 경험에 더 집중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촉진되는 공식적/비공식적 학습 기회와 관련하여 유연하고 범용화된 접근성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도서관의 공간과 인프라를 변경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을 제기했다. 도서관은 창의적이고 쌍방향적인 새로운 학습 경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인지되지 못했을 기술과 역량의 개발을 지원하고 추적하고 인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교육의 역할과 목적을 둘러싼 이러한 포괄적인 논의와 연계하여, 신기술이 미래세대의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2015년 3월, 영국과 학기기술예술재단(UK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NESTA)은 ‘젊은 디지털 제작자들(Young Digital Makers)’⁷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단은 현재 영국의 교육 및 기술 제공 시장에 심각한 격차, 즉 디지털 제작 기회에 대한 공급은 희소한 반면 수요는 높은 상황을 강조했다. NESTA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분명히 이전 세대보다 디지털 플랫폼과 기기들에 더 친숙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원주민들(digital natives)이 이용자 친화적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라는 두꺼운 벽에 갇혀서 테크놀로지의 복잡성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공유경제와 연결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제품이 모든 국가의 경제적 우위,

⁷ Young Digital Makers, Surveying attitudes and opportunities for digital creativity across the UK, NESTA, 2015년 3월

성장과 직업 창출에 대한 미래 전망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환경에서는 주류 디지털 제작 기술의 부재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16년 4월에 '페이엣빌 자유도서관(Fayetteville Free Library)'의 수 콘시다인(Sue Considine) 관장은 토론에서 개최된 IFLA 회장 주재 회의에서 발표⁸를 했다. 이 자리에서 콘시다인 관장은 테크닉적 기술과 창의적 기술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도서관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 기술, 공학, 예술과 디자인, 수학(STEAM) 전반에 걸쳐 공식/비공식 학습을 혼합하는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도서관은 21세기 문해성의 제공을 둘러싼 도서관의 의무를 개발할 고유한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

1년 전에 "창의성 vs. 로봇(Creativity versus Robots)"라는 제목의 보고서⁹가 발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옥스퍼드대학교의 연구를 인용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미국에서는 직업의 47% 그리고 영국에서는 직업의 35%가 신기술에 의한 자동화로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미래의 세계노동시장이 점점 더 창의적이고 테크닉적인 기술을 중시하게 될 것이며, 일상적이거나 피상적인 기술 수준의 직업들은 급여가 낮아질 것이다. 이 맥락에서 NESTA는 교육자와 정부가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모험적인 디지털 탐험과 창의적인 실험 문화로 젊은이들을 독려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¹⁰

3.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의 경계가 재정의될 것이다.

국제적 맥락

2013년 8월 IFLA 동향보고서가 발표될 당시에는 정부와 기업의 감시활동에 대한 디지털 정보가 유출되어 파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 세계인들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PRISM 감시 프로그램이 이메일, 비디오, 음성 커뮤니케이션, 파일 전송, 소셜네트워크 프로필 정보 등 다양한 출처들로부터 개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¹¹ 2014-2015년에 위키리크스는 계속해서 기밀 정보를 추가로 폭로했다.¹² 이러한 폭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장관에 의한 기밀 통신 50만 건, NSA가 프랑스, 독일, 일본 정부를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당시 미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이메일 1,000여 건¹³이 포함되었다.

2016년 4월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이후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로 알려지게 된 1,150만 건에 달하는 문서(처음에 남부독일신문(Sueddeutsche Zeitung)에 제공됨)를 공개했다.¹⁴ 파나마 법률회사인 모삭 폰세카(Mossack Fonseca)의 소유인 이 문서들은 기업, 비즈니스 리더,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금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법들을 교묘히 빠져나가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폭로는 아이슬란드 총리의 사임과 일련의 국제적인 경찰조사를 촉발했다.

지역적 관점들

놀랍지 않은 사실이지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둘러싼 문제들은 IFLA 동향보고서에 의해 시작된 논의의 핵심 영역들로 등장했다. 아프리카에서의 논의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전례 없이 많은 양의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인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소셜미디어에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 아프리카의 사서들은 자국에서 정부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규제를 설계하는 과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의 사서들은 점점 더 많은 정부와 영리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용자들이 사서에게 여권 신청이나 온라인 बैंक 서비스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인해 일부 사회집단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써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유럽에서의 논의는 디지털 기술이 더욱 높은 수준의 민주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능케 하는 한편으로,

⁸ Making & STEAM in Public Libraries, Our Developing Mandate, Sue Considine, Executive Director, Fayetteville Free Library, 2016년 IFLA 회장 배 회의, 캐나다 토론토, 2016년 4월 7일

⁹ Creativity vs. Robots, the creative economy and the future of employment, NESTA, 2015년 4월, p. 10

¹⁰ Young Digital Makers, Surveying attitudes and opportunities for digital creativity across the UK, NESTA, 2015년 3월, p. 4

¹¹ Prism – latest news and comment on Prism the national security electronic surveillance program operated by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agency, The Guardian, 2016년 7월 11일 접속

¹² Leaks, Wikileaks.org, 2016년 7월 11일 접속

¹³ Hillary Clinton Email Archive, Wikileaks, 2016년 3월 16일

¹⁴ The Panama Papers – a torrential leak, The Economist Newspaper, 2016년 4월 9일

정부와 기업들이 개인과 집단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 지역에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날로 변화하는 문제들에서 사서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잠재적인 변화 영역들로는 이용자들이 생성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사서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경쟁력과 기술을 조사하는 것과 개인정보 및 온라인 정보의 관리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도서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2015년 8월에 IFLA의 '정보 접근성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AIFE)'는 도서관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성명서¹⁵를 작성하여 IFLA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성명서의 목적은 정부의 감시와 영리적 데이터 수집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들, 국제법과 기존 IFLA 정책에서 관련된 측면들에 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성명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잠재적 지원활동 및 도서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과 관련하여 도서관에 권장사항들을 제시했다.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및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의 동의라는 개념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중 다수는 사적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소비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역으로, 소비자들은 고도로 정교하고 개인화된 대상별 광고에서 수익을 얻는, 고도로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서비스와 앱을 무료로 즐긴다.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른 상업적 영역들로 점점 더 확산하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들이 종종 소비자와 이용자들에게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할 잠재성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들에 의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수 있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보안/보호와 관련한 일관성 결여로 인해 비인가 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영리적 목적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기대 간에 격차가 점점 커져서 앞으로의 전 세계 정보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¹⁵ IFLA Statement on Privacy in the Library Environment, IFLA, 2015년 8월 20일

정부와 기업이 탐색하고 있는 미래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모델들이 디지털 참여 기제에 대한 대중들의 지속적인 신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우려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다. 2016년 11월에 영국의 보험업계를 규제하는 당국인 영국 금융행위감독기구(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발행한 자문 보고서¹⁶는 보험회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소비자 그룹들을 차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2016년 5월,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미국 행정부 기관인 '미국전기통신 및 정보행정 사무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온라인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¹⁷를 발표했다.

또 사물인터넷(그리고 스마트시티와 같은 관련된 상황들)을 움직이게 될 기기와 인프라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 수집 센서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또 중소기업들보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할 역량이 높은 대기업들에 시장 권력이 지나치게 많이 쏠릴 우려도 있다.

영리적 목적으로 데이터가 사용되고 공유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의) 개인의 동의나 통제,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많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플랫폼, 앱들은 이용자들에게 "본인은 위 조건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박스나 버튼을 클릭해서 프라이버시 정책에 동의하도록 요구한다(그러한 문서는 대체로 어려운 법률 용어와 조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내용이 엄청나게 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과연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의 동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수의 최근 연구들을 폭넓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5월에 발표된 논문¹⁸에 따르면, 이러한 동의서의 0.05%만이 소비자들이 동의하기 전에 실제로 볼 수가 있었다. 또 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러한 동의서들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은 평균 60초 미만이었다. 같은 보고서¹⁹에서는 또 소비자들이 일 년에 방문하는 모든 웹사이트들의 계약조건들을 읽으려면 80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¹⁶ Call for Inputs: Big Data in retail general insuranc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5년 11월, pp. 10-12

¹⁷ Lack of Trust in Internet Privacy and Security May Deter Economic and Other Online Activiti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6년 5월 13일

¹⁸ Personal Data and Privacy. Final Report, WIK-Consult, 2015년 5월 26일, p. 2

¹⁹ Ibid; p. 2

미숙한 디지털 흔적

동향보고서 논의들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지속적인 우려 영역은, 젊은 캠페인 활동가들과 학자, 언론인들이 지적한 것으로, 영구적인 디지털 흔적을 남김으로써 젊은 세대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다. 디지털 활동에 대한 이러한 영구적인 기록은 과거의 판단 실수, 불행한 경험, 미숙한 태도 등을 문서화하여 전 세계가 보도록 할 수 있다.²⁰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당시 구글의 COO)는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미숙한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²¹

영국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에 있었다. 17세인 패리스 브라운(Paris Brown)은 언론이 알코올, 섹스, 약물, 모욕적인 사회적 전형화에 대한 브라운의 트위터 게시물들을 보도한 후 켄트경찰서(Kent's Police) 청소년 자문관직에서 사임했다.²² 최근에 널리 알려진 또 하나의 사례는 20세의 마하이라 블랙(Mahairi Black)(2015년 5월에 선출된, 1667년 이후 최연소 의원)이다. 블랙은 어렸을 때 트위터에 알코올과 자신의 수학 혐오에 대해 욕설로 점철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비판을 받았다.²³

이것은 정보 문해성과 프라이버시의 전통적인 영역들이 이제는 새로운 개념들을 포괄하도록 연결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수의 온라인 정체성을 관리하고 개인적인 디지털 브랜드의 다양한 사적, 전문적 요소들을 보여주고 관리하는 법에 대한 지침과 모범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다.

4. 초연결 사회는 새로운 목소리와 집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²⁰ Ministers back campaign to give under-18s right to delete social media posts, The Guardian,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²¹ Young will have to change names to escape 'cyber past' warns Google's Eric Schmidt, The Telegraph, 2010년 8월 18일

²² Kent Youth PCC resigns after Twitter row, BBC News, 2013년 4월 9일

²³ We enjoyed reading Mahairi Black's NSFW tweets as a teenager, The Independent website, 2016년 1월 6일 접속

남미에서의 동향보고서에 관련한 논의들은 도서관이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을 이용해서 사회적 취약성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성을 탐색했다. 이것은 디지털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소외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지역별로 제한된 연결성과 격차가 사회적 포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이 인식되었다.

2013년에 동향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다수의 연구가 "온라인 탈억제 효과(online disinhibition effect)"를 조사했다.²⁴ 이 개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라인 익명성, 물리적 분리, 거리감, 온라인상의 행동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뒤에 숨어서 사이버공간에서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많은 사람은 현실 세계의 대면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한다. 그러한 행동으로는 온라인 범죄²⁵와 사기, 저작권 침해, 콘텐츠 해적행위 및 불법 품목 거래²⁶ 등이 있다. 비슷한 주장을 근거로, 다른 연구들²⁷은 온라인 익명성이 인종/젠더 폭력, 유해물 게시, 괴롭힘 등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한다. 지난해에 '런던 학습 그리드(London Grid for Learning)'의 연구에 따르면, 3-9학년 아동의 22%가 온라인 상에서, 특히 게임 콘솔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²⁸

온라인 탈억제 효과는 또 일부 개인들의 경우 잠재적으로 이후의 오프라인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올해 초 영국의 국가 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NC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

²⁴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John Suler, Cyber Psychology & Behaviour, 2004년 6월

²⁵ National Strategic Assessment of Serious and Organised Crime 2015, National Crime Agency, 2015년 6월

²⁶ The Rise and Challenge of Dark Net Drug Markets, Julia Buxton & Jim Bingham, Swansea University and the Global Drugs Policy Observatory, Policy Brief 7, 2015년 1월

²⁷ Cyberbullying: Review of an Old Problem Gone Viral,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15년 7월; Embodied Harms: Gender, Shame and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in Cyberspace, Violence Against Women, 2015년 3월; Cyberbullying, Internet trolls and their psychopathic profile, Dorian Furtuna, Social Ethology, Human Instincts in a Modern Society, 2014년 11월 19일; Trolling in asynchronou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from user discussions to academic definitions,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Language, Behaviour, Culture Volume 6, 2010년 7월

²⁸ London Grid for Learning E-Safety Survey 2015, Final Report, p. 15

다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 5년간 600% 증가했다.²⁹ 이 보고서는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처음 만나서 교류를 한 두 명의 개인”에 의해 형성된 특수한 행동과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³⁰ (안전하게 느껴지는) 온라인에서의 첫 상호작용은 빠르게 신뢰와 친밀감을 구축하는데, 이로써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을 모험을 감수하도록 만들 수 있다.예. 공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 낯선 사람과 직접 만나기로 하는 것³¹ 또 초기의 온라인 익명성은 감정적으로 더 솔직하고 보다 명확한 성적 표현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성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거나 부풀려질 수 있다

온라인 탈억제 효과를 둘러싼 핵심적인 질문은 이러한 동향이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적응에 따른 일시적인 증상인가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점진적으로 보다 전통적인 문화적 규범과 행동을 온라인 상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는 자연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온라인 행동 기준을 발전시킬 것이며, 우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익숙해지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4 전 세계의 정보경제는 신기술에 의해 변모될 것이다.

3D 프린팅

아프리카에서의 동향보고서 논의는 3D 프린팅을 기회이자 위협으로 보았다. 3D 프린팅은 새로운 국내 제조 역량을 자극하고 아프리카의 상업적 공급망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간주하는 한편으로, 다수의 소규모 제조업자들과 그 직원들, 그들이 제품을 공급하는 소매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호주에서는 점점 더 많은 도서관에서 3D 프린터를 비치하면서 창의적인 메이커 스페이스, 협력적인 학습 영역, 모임 공간의 제

공과 함께 물리적인 도서관 공간이 재개발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북미에서의 논의는 3D 프린터가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 출판,

디지털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원하는 잠재적으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부 논의자들은 “도서관이 번쩍거리는 물체에 과다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3D 프린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마지막 주장은 3D 프린팅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 간의 긴장 관계를 잘 보여준다. 동향보고서의 출간 이후 3D 프린팅은 상업적 이용과 개인적 이용 양면에서 혁신적인 기술로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몇몇 논객들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3D 프린팅이 과장 홍보된 측면이 있다. 2016년 1월, 포브스는 많은 공급자가 기존의 기대 수익을 정정하고 소비자 제품 단위들을 폐쇄시키면서 2015년³²이 소비자 3D 프린팅 거품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3D 프린팅의 산업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기에 들어설 준비가 되었으며 이것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여 2016년 4월에 PWC는 3D 프린팅에 대한 전 세계 지출이 2015년 110억 달러에서 2019년 2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³³ 이 보고서는 산업적 3D 프린팅이 더는 최신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 기술로 간주하는 지점을 넘어섰다고 보았다. 또 미국 제조업체의 2/3가 3D 프린팅 기술을 채택했으며, 52%는 향후 3-5년간 이 기술이 대량 생산에 이용될 것으로 예측했다.(2014년에는 그 비율이 38%였다) 그러나 3D 프린팅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22%는 3D 프린팅으로 인해 공급망이 구조 조정을 거칠 것이며 또 22%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다.³⁴

공유경제

IFLA 동향보고서의 발간 이후, 소위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부상이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과 정책결정자들,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관심은 대체로 초연결된 디지털 시장이 –기존의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²⁹ Emerging new threat in online dating. Initial trends in online dating-initiated serious sexual assaults; National Crime Agency, 2016년 2월 7일, p. 5

³⁰ Ibid; p. 7

³¹ Ibid; p. 7

³² 8 Hot 3D Printing Trends to watch in 2016, Forbes, 2016년 1월 12일

³³ 3D Printing comes of age in US industrial manufacturing, PWC, 2016년 4월, p. 2

³⁴ Ibid; p. 2

서비스를 교환하는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역량에 집중되었다. PWC의 2014년도 보고서³⁵는

전 세계의 공유경제가 9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3,5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과장된 수치들을 넘어서 본다면, 본질적으로 공유경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또는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과 시간, 자산, 자원들을 이용하는 것이다.³⁶ 공유경제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자동차 이동, 자동차, 전동 공구, 주차공간, 집, 남은 방을 빌리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경우에 이러한 플랫폼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주류의 영리적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던 영역들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

집이나 방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기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Airbnb)가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에어비앤비가 2015년에 9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며, 2020년까지 1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³⁷. 공유경제의 또 다른 예는 가정에서 더는 쓸모가 없게 된 물건을 지역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도록 도와주는 프리글(Freecycle)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P2P 대출 플랫폼인 조파(Zopa)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높은 이자를 받고, 빌리는 사람은 일반 은행대출보다 낮은 이율에 돈을 빌린다.

북미의 동향보고서 논의에서 도서관을 “공유경제의 원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흥미롭다. 실제로 다른 논객들도 공유경제 또는 협력경제 내의 활동과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전 역사에 걸쳐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물품을 임대, 교환, 대여하는 활동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해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최근에 변한 것은 신기술이 사람들을 쉽게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최근 NESTA는 이러한 새로운 협력경제³⁸가 소유보다는 접근성, 중앙집권화된 기관보다는 분산된 네트워크를 가능케 함으로써 부를 재분배할 수 있게 할 광범위한 지구적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비즈니스와 가치, 교환,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들도 점진적으로 변화

할 것이다.

블록체인

동향보고서의 발표 이후, 우리는 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잠재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2016년 4월 IFLA 회장 주재 회의의 폐회사에서 도나 쉬더 회장은 토론토 논의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정보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³⁹ 같은 날, 저자 겸 혁신 전문가인 돈 탭스코트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 로봇틱스와 같은 기존의 혁신들이 “블록체인 혁명”에 의해 곧 변화될 상황에 있으며 이는 우리의 지구촌 사회와 경제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⁴⁰

블록체인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⁴¹을 탄생시킨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바탕으로, 그것이 지구적 차원에서 더욱 광범위한 혁신과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되었다.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포커스와 자산은 신뢰이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거대한 지구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수백만 대의 기기와 기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분산된 장부”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오픈소스이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강력한 디지털 암호로 보호되어 있어서 이 영구적인 기록이 진짜 거래를 통해서만 갱신될 수 있으며 제3자가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⁴²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정부나 금융기관 또는 테크놀로지 기업과 같은 중재자가 없이도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상호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⁴³

모든 형태의 정보와 거래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보증하는 블록체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몇몇 논객들은 그것이 우리 사회와 정치, 경제 환경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지적재산권, 토지대장, 상업적 계약, 대출, 구매,

³⁵ The Sharing Economy -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PWC, 2014

³⁶ Unlocking the Sharing Economy - an independent review, Debbie Wosskow, 2014 년 11 월, p. 14

³⁷ The Secret Math of Airbnb's \$24 billion valu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15 년 6 월 17 일

³⁸ Making sense of the collaborative economy, NESTA, 2014 년 9 월, p. 7

³⁹ Building the agenda and making it happen, closing address to IFLA President's meeting, Toronto, Canada, 2016 년 4 월 7 일, p. 1

⁴⁰ Blockchain Revolution, Prosperity in the Second Era of the Digital Age, Don Tapscott, IFLA President's Meeting, Toronto, Canada, 2016 년 4 월 8 일

⁴¹ Frequently Asked Questions, Bitcoin.com

⁴² Blockchains . the great chain of being sure about things, The Economist Newspaper, 2015 년 10 월 31 일

⁴³ The impact of the Blockchain goes beyond financial services, Harvard Business Review, 2016 년 5 월 10 일

자본시장, 혼인/출생증명서가 모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독립적으로 인증되고, 관리되고, 보편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세상을 상상한다.⁴⁴

다른 이들은 이러한 유형의 분산된 신뢰 엔진이 사물인터넷에 의해 움직이는 센서 장착 기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필수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⁴⁵ 2016년 5월에 IBM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공유경제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인증하고 보증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⁴⁶를 내놓았다.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채택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학적으로 외부 조작이 불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기록을 제공하는 능력은 정부와 기업, 개인들과 우리의 관계를 전례 없는 규모로 바꾸어놓을 잠재성이 있다. 작년 10월에 이코노미스트 신문은 *"블록체인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비즈니스와 사람들이 협력하는 방식을 바꾸어놓을 잠재성이 있다"*⁴⁷고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암호화된 돌에 새겨놓을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⁴⁸고 주장했다.

⁴⁴ How blockchains could change the world, interview with Don Tapscott, McKinsey & Company, 2016 년 5 월

⁴⁵ IBM looks to Bitcoin blockchains for internet of things platform, Computer Weekly, 2015 년 1 월 22 일

⁴⁶ Blockchain and the Sharing Economy 20, IBM, 2016 년 5 월 12 일

⁴⁷ The promise of the blockchain . The trust machine, The Economist Newspaper, 2015 년 10 월 31 일

⁴⁸ Blockchains - the great chain of being sure about things, The Economist Newspaper, 2015 년 10 월 31 일

6 추가적 결론과 도서관이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주요 사항들

국가적, 지역적 동향보고서 논의에서 부각된 핵심 주제들

이 섹션은 국가적, 지역적 동향보고서 논의와 사례연구에서 부각된 기타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하고 있다. 특히 다섯 가지 IFLA 동향을 평가한 이전의 섹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서관의 역할

30개국에서 진행된 동향보고서 논의들은 도서관의 미래 역할에 대해 활기차고 열정적인 논쟁을 촉발했다. 도서관이 더욱 폭넓은 청중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합의되었다. 도서관이 정보 문해성, 지적재산, 데이터 관리 등 주요 영역에서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자연스러운 역할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동시에 신기술에 따른 기회를 포용하는 일과 기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기능들을 유지하는 일 간에 지속적인 긴장(tension)이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공통된 결론은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신중하게 분석 및 추적하고, 거기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바꾸거나 갱신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서들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전통적인 도서관 원칙들의 적용을 다시 상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신뢰와 중립성, 정보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성, 표현의 자유는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도서관 브랜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및 물리적 공동체에서 사회적 포용과 기회의 평등을 최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16년 4월 IFLA 회장 주재 회의에서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이자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⁴⁹

대부분의 도서관이 물리적 공간이자 동시에 가상적 공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로써 물리적 인프라/서비스와 디지털적 인프라/서비스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 도서관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원격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도서관을 물리적 장소이자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이것은 도서관의 사회적, 참여적 차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유발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와 기능이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사회가 대면적 협력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등과 같이 디지털화될 수 없는 경험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의 서비스를 기획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물리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고유한 강점이 될 수 있다.

기술, 인프라, 예산

동향보고서 논의는 기술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습득해야 할 기술과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도서관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동향보고서 논의들과 연계하여 오스트리아와 호주, 에스토니아의 도서관 협회들은 이미 도서관 전문가들을 위한 커리큘럼에 빅데이터 관리,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과 같은 디지털 경쟁력들을 포함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론은 또 2016년 4월 IFLA 회장 주재 회의에서도 재차 강조되었는데, 도나 쉬더 회장은 “사서들이 개인적인 학습을 지속하는 일”과 “그

⁴⁹ Building the agenda and making it happen, closing address to IFLA President's meeting, Toronto, Canada, 2016 년 4 월 7 일, p. 5

것이 아무리 몸에 배여 편하더라도 낡은 업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포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⁵⁰

모든 지역에서의 논의는 또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가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서 디지털 연결성과 인프라의 단점이 지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 이용자들의 기대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이 서비스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만을 고려하는 정치권의 인식으로 인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공유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주된 결론은 도서관이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성과를 쉽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정책 이야기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략적 조율과 협력

앞서 언급한 지점들을 바탕으로 나온 또 하나의 공통된 주제는 도서관 간에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는 도서관이 기술, 정책, 정보 기술 서비스와 인프라 등 광범위한 사안들에서 타 도서관들, 지방정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국제적인 협력은 프라이버시, 저작권,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성 등 보다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또 도서관이 날로 디지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도전과 기회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들을 개발하는 일이 모든 수준의 잠재적인 협력에서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 2016년 4월 IFLA 회장 주재 회의의 폐회사에서 도나 쉬더 회장은 “우리는 협력함으로써..... 날마다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모든 사서가 기쁨을 느끼는..... 그런 미래의 비전을 만들 것이다⁵¹”라고 말했다.

이러한 실들을 엮어 도서관의 미래 전략이라는 천으로

만들기

이러한 논의의 내용과 결론을 바탕으로 2015년 8월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회장 당선자 주재 회의에서 IFLA 변화 의제(Change Agenda)⁵²가 발표되었다. IFLA 동향보고서 논의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IFLA 변화의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정보 전문가들에게 분절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1. 개인적 차원: 21세기에 성공적인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도서관 교육은 새로운 의제를 통해 사서들이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조직적 차원: 사서들은 새로운 소통 및 조직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미래의 비전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조직 내에서 변화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3. 국가적 차원: 대상이 분명하고 협력적이며 증기 중심적인 홍보/지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노력을 저해하는 정치적, 법률적 장애물들을 규명하여 분석하고 대응한다.

4. 국제적 차원: 강한 전국적 조직과 강한 IFLA를 통해 한목소리로 도서관의 글로벌 비전을 표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IFLA 변화 의제는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 기술, 우수 관행이 전 세계 도서관 생태계의 여러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서들의 열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와 접근성의 자유를 지지하는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을 바탕으로 한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IFLA 변화 의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서관들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들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 본 자료는 IFLA에서 발간한 자료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번역 하였습니다.

출처: <http://trends.ifla.org/files/trends/assets/trend-report-2016-update.pdf>

⁵⁰ Ibid; p. 2

⁵¹ Building the agenda and making it happen, closing address to IFLA President's meeting, Toronto, Canada, 2016 년 4 월 7 일, p. 5

⁵² Building the IFLA Change Agenda, IFLA, 2015 년 8 월 20 일



TREND REPORT

IFLA Headquarters
P.O. Box 95312
2509CH The Hague
Netherlands
TEL + 31-70-3140884
FAX + 31-70-3834827
E-MAIL ifla@ifla.org
www.ifla.org